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김 정 현(Jeong-Hye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 모색 |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 KCR4의 특성 및 문제점 |
| 2. 연구방법 | 2. 국내 목록 전문가의 KCR4 개정에 대한 의견 |
| 3. 선행연구 | 3. KCR4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 II. 국내외 목록규칙의 흐름 | IV. 결론 |
| 1.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 | |
| 2. 국내 목록규칙의 흐름 | |

초 록

이 연구는 국내외 목록규칙의 흐름과 함께 KCR4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KCR4의 개정과 관련하여 목록전문가의 설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목록규칙의 개정방향을 제안 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파리원칙 이후 최근의 국제적인 목록규칙 흐름은 국제목록원칙규범과 FRBR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RDA로 집약되어 있다. 둘째, 2003년 KCR4가 제정된 이래 KCR4는 제정 당시부터 전거제어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미완성의 규칙이었으며,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서관 현장에서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KCR4가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KCR4의 개정에 대한 목록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RDA와 같은 최근의 국제목록규칙의 흐름을 수용하고, 또한 접근점에 대한 내용추가, 전거제어를 위한 세부규칙 마련, RDA의 대폭적인 수용과 함께 자료유형별이 아닌 기술요소별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점이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키워드: 한국목록규칙, 자원접근과 기술, 영미목록규칙, 국제목록원칙규범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KCR4's revision based on analysis of trends in cataloguing rules at home and abroad, characteristics of KCR4, and professional cataloguer's survey about revision of KCR4. Results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fter Paris principles, the international attention to cataloguing rules is recently centered on ICP and RDA based on FRBR. Second, most cataloguing librarians feel confused over because KCR4 after 2003 is an unfinished rules without provisions on the authority control and heading's selection and form. So they want to revise KCR4. Third, the results of the professional cataloguer's survey showed mostly that KCR4 should be revised adopting international cataloguing rules like RDA and including contents of access points, detailed rules of the authority control, and the description in elements instead of resource's type.

Keywords: KCR, RDA, AACR, FRBR, ICP

* 이 논문은 2013년 10월 24일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 논문접수: 2013년 11월 15일 • 최초심사: 2013년 11월 26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8일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최근 목록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KCR4가 발행된 이래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목록의 근간이 되어 많은 역할을 하여왔지만,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2010년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이 완전히 변모되었으며, 2011년 ISBD 통합판도 발행되었다. 2012년 MARC 21도 RDA 수용을 위해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일본목록규칙도 2010년부터 RDA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KORMARC 통합서지용도 RDA를 반영하여 이미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한국목록규칙을 시급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KORMARC 형식과 한국목록규칙의 이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국제목록규칙의 흐름은 FRBR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RDA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 KCR4의 개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도 RDA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도 KCR4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 이전에 KCR4가 지닌 본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KCR4의 개정에 있어 RDA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부분적인 수용을 할 것인지, 도서관현장의 목록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호주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은 RDA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언어적 기반이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에서는 RDA를 번역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제정하는 수준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목록규칙의 흐름과 함께 KCR4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KCR4의 개정과 관련하여 목록전문가의 설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목록규칙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의 국제목록규칙 흐름과 우리나라와 목록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목록규칙 개정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KCR4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KCR4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KCR4의 개정방향과 관련된 설문지 분석을 통해 목록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앞서 분석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KCR4의 제정 이후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손정표는 KCR4에 표목선정규칙이 없고 기술규칙만 제시한 채 편목자의 임의판단에 맡겨놓음으로써,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작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어느 규칙을 적용해야 할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표목선정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 오동근은 현시점에서 한국목록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전거통제를 위해 AACR2와 같은 표목부의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²⁾ 김정현은 ISBD(CR)을 반영하여 연속간행물의 범주를 계속자료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³⁾ 김태수는 한국목록규칙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FRBR을 기반으로 한 목록기능의 재설정, 전조합 구문 규칙을 적용한 주제명표목 대신 후조합 기법으로 용어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구조의 주제명표목 개발, 이용자의 언어환경과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표목의 전거형식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전거시스템구축 등을 주장하였으며,⁴⁾ 이창수는 한국목록규칙의 유용성을 언급하면서 각종 접근점의 형식 제시는 물론, 음악 녹음자료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자료에는 목록 이용자의 검색성을 고려한 접근점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통일표제의 개념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⁵⁾

조재인은 RDA 구현을 위한 한국목록규칙과 KORMARC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제목록원칙규범과 FRBR, RDA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⁶⁾ 이미화는 국제목록원칙규범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ISBD의 수용과, FRBR 및 FRAD 개념모형 구현을 위한 속성 기술, 전거형 접근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⁷⁾ 도태

1) 손정표, “음악 녹음자료의 표목지시사항 관련 규칙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 第16輯(2004), p.59.

2) 오동근, “한국형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p.43.

3) 김정현, “ISBD(CR)의 특성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p.164.

4) 김태수, “한국목록규칙의 현재와 미래,” 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정책: 개관 6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5, pp.244-249.

5) 이창수,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6권, 제3호(2005), pp.137-148.

6) 조재인, “RDA 구현 시나리오와 서지 제어의 장래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09), pp.85-105.

7) 이미화,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2권(2012), pp.261-280.

현은 RDA와 관련하여 한국목록규칙의 접근점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⁸⁾ 이미화⁹⁾와 박진희¹⁰⁾는 저작 및 표현형 요소, GMD 및 SMD, 내용유형 및 매체유형, 기술규칙 등 RDA를 고려한 한국목록규칙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RDA의 수용을 전제로 KCR4의 개정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KCR4의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국내외 목록규칙의 흐름

1.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

가. 파리원칙 이전

목록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원전 목록을 대표하는 Ashurbanipal 도서관 및 Alexandria 도서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의 목록은 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증거기록을 위한 수단 즉, 재산목록의 수단으로 단순히 서지정보를 기술한 것이며, 오늘날의 목록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목록법이 확립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발전하여 왔다.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이전의 대표적인 목록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1841년 Panizzi의 대영박물관 목록규칙, 1876년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 그리고 1953년 Lubetzky의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칙에는 1998년 IFLA의 FRBR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요구’와 ‘저작’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러한 규칙에 이미 함축되어 있었다.

특히 Lubetzky는 1936년 발표된 Pettee의 논문¹¹⁾에서 ‘저작’의 개념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물론 Pettee는 Panizzi와 Cutter뿐만 아니라 1674년의 Bodleian Library의 T. Hyde까지 거슬러 올

8) 도태현, “RDA의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pp.27-48.

9) 이미화,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pp.251-272.

이미화, “KCR4 GMD 및 SMD 기술의 새로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pp.237-255.

이미화,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2011), pp.23-42.

이미화,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3호(2011), pp.103-121.

이미화, “ISBD 및 RDA 내용유형 및 매체유형 기술 테스트를 통한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2013), pp.119-137.

10) 박진희, 2009.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pp.111-138.

11) Julia Pettee,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ul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The Library Quarterly*, Vol.6, No.3(July 1936), pp.270-290.

라가 편목의 역사를 조사하여 어림פות이 윤곽이 제시되어 있던 저작의 개념을 밝혀냈다. Lubetzky는 이를 토대로 ‘저작’이라는 개념의 완전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¹²⁾

“... 목록의 목적 즉, 특정 저작의 모든 저작들을 보여주고 모든 판과 번역본을 함께 모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 저작의 저작들이 저자명의 변경이나 번역, 번자, 심지어는 오식의 결과로 서로 다른 이름 아래 발행될 수도 있고, 어떤 저작의 판이 비슷한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표제아래 발행될 수도 있다 ...”

이것은 FRBR에서 저작, 표현형, 구현형에 관한 언급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Lubetzky는 파리원칙의 작성과 AACR 초안 작성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저작’의 사고방식을 주창하였다.

한편 국제수준에서 서지정보의 유통과 교환을 위한 원칙이 196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원칙에는 명문화된 개념모형이 없지만, Cutter의 목록기능론, 저자원칙에 근거한 기본기입방식, 단체저자의 개념, 저작단위와 서지단위의 대비라는 목록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나. 파리원칙 이후

파리원칙을 기반으로 ISBD와 AACR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 국제목록원칙규범이 제시되기까지 각국의 목록기반이 되어 왔다. 국제목록원칙규범은 서론에서 파리원칙 시대의 이러한 목록이론을 ‘세계의 위대한 목록법의 전통’으로 그 계승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모형인 FRBR과 FRAD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목록원칙규범은 ① 도서관계의 온라인 목록 및 그 이상의 것을 대상으로 하며, ② 모든 자료유형(텍스트자료에 한정하지 않음)을 상정하고, ③ 표목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도 포함한 목록 전체, 나아가 전거데이터를 포함한 원칙으로 “모든 유형의 서지자원에 대한 기술목록법과 주제목록법에 대해 일관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¹³⁾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제정된 RDA는 FRBR의 탄생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RD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FRBR의 탄생배경을 간과할 수 없으며, FRBR의 개념 모형은 IFLA의 연구진 보고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FRBR의 첫 번째 목적은 서지레코드를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위해 서지레코드에 기록할 데이터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조화 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12) William Denton, “FRBR and the History of Cataloging,” In: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 ed. by Arlene G. Taylor(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7), p.95.

13) IFLA, Cataloguing Section,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9, p.2. <<http://www.ifla.org.sg/VII/s13/icc/index.htm>> [cited 2013. 11. 5].

두 번째 목적은 개별국가의 국가서지기관에서 만드는 레코드에 대해 기능적인 기본수준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이 개발한 개체-관계 모형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¹⁴⁾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세계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표준이 RDA이다.¹⁵⁾ 즉,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목록이 아니라 웹 기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매체에 대한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다국적 내용의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ISBD도 2011년 통합판을 발간하면서 FRBR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표제와 책임 표시영역(제1영역)에서 GMD를 제거하고, 자원의 유형을 기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용형식, 내용 한정어, 매체유형을 기술하는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영역(제0영역)'을 새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요소별 기술사항별로 필수여부도 표시하였다.¹⁶⁾ LC에서는 RDA 수용을 위해 2012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MARC 21에 새로운 필드를 많이 추가하였으며,¹⁷⁾ 특히 RDA의 부록에 리스트로 제시된 각종 관계어를 MARC 21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지금까지 국제표준서지기술의 역할을 수행하여온 IFLA의 ISBD가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RDA가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 일본목록규칙의 개정

우리나라와 목록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일본목록규칙 1987년판 발간이후 세 번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2010년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일본목록규칙의 개정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최근의 국제목록규칙을 반영하여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¹⁸⁾ 2013년 일본목록규칙 개정방침과 진행상황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주요 개정내용의 규정범위, FRBR 모형의 대응, 요소 설정, 전거제어, 관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⁹⁾ 전체를 ① 총설, ② 자료에 관한 기술, ③ 전거형 접근점, ④ 관계, ⑤ 부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②~④의 작업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일본목록규칙은 RDA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4)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Munich: Saur, 1998), p.10.

15) Alan Danskin, *RDA :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A Prospectus, 5JSC/RDA/Prospectus/Rev/7 (1 July 2009)*, <<http://www.rda-jsc.org/docs/5rda-prospectusrev7.pdf>> [cited 2013. 11. 5].

16) ISBD Review Group, *ISBD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Consolidated edition(Berlin : De Gruyter Saur, 2011), p.xvi.

17) Library of Congress, *RDA in MARC*, October 2012, <<http://www.loc.gov/marc/RDAinMARC-10-12.html>> [cited 2013. 11. 5].

18) 日本図書館協會 目録委員會, 日本目録規則の改訂に向けて, 2010, <<http://www.jla.or.jp/portals/0/html/mokuroku/20100917.pdf>> [引用 2013. 11. 5].

19) 日本図書館協會 目録委員會, 日本目録規則改訂の方針と進捗状況, 2013, <<http://www.jla.or.jp/Portals/0/html/mokuroku/20130221ncr.pdf>> [引用 2013. 11. 15].

2. 국내 목록규칙의 흐름

가. 한국목록규칙이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목록규칙의 사용에 대한 기록은 1923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설립된 이후 부터이며, 이때부터 해방 전까지 주로 일본의 목록규칙이 사용되었다. 당시 사용된 일본의 목록규칙들은 메이지유신 후 도입된 서양식 목록규칙을 적용해서 편찬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목록규칙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양식 목록규칙이 간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일본의 목록규칙들은 그 기술내용이나 체제를 서양식 목록규칙에 따르고 있었으나 기본표목의 개념이 애매한 상태에서 서명을 선기입한 서명목록을 기본목록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해방 후 1948년 편찬된 박봉석의 東書編目規則(1954년에 朝鮮東書編目規則으로 개제)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²⁰⁾

당시 목록규칙의 국제적 추세였던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하여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목록규칙은 1954년 고재창에 의해 편찬된 韓銀圖書編目法이며, 다음 해인 1955년에 편찬된 박희영의 東書編目規程(草)도 역시 저자명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나. 한국목록규칙이후

국가나 단체에서 처음으로 표준적인 목록규칙을 편찬하려는 시도는 1962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목록규칙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목록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도서관협회에서는 파리원칙에 준하는 목록규칙을 편찬하여 1964년 韓國目錄規則(KCR) 초판을 발간하였다. 이는 저자명기본저록을 채택하고 있으며, 표목의 표기는 한글, 외국인명과 서명 등은 번자표목으로 하고 있다. 제1부 기본표목의 선정, 제2부 표목의 형식, 제3부 목록기술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의 표준목록규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6년에 수정판(KCR2)이 발간되었는데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나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제거하고 예시를 보강하는 등 체계상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83년에 제3판(KCR3)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 국제표준인 ISBD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서지기술의 표준화를 기하고, 레코드의 국제교환과 기계가독목록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술부를 표목과 독립시킨 서지기술 단위저록의 목록규칙을 지향하고 있으며, KCR2 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서 전문 목록규칙이었지만 KCR3에서는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의 목록규칙이다.

2003년에는 제4판(KCR4)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목록의 기능제시, 기술대상의 확장, 표목이란 개념대신에 접근점, 책임표시의 한계 해소, 기본표목 및 통일표목을 배제하였다.²¹⁾ 특히 KCR4는

20) 도대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p.14-15.

21)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韓國目錄規則, 第4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pp.vii-xi.

당시에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수용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던 규칙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013년에는 KCR4 '보유권: 전자책, 전자저널 기술규칙'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자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자책이나 전자저널과 같은 원격접근 전자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목록규칙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되었다.²²⁾ 즉, KCR4의 제8장에 전자자료가 있으나 이는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과 프로그램파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목록형태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코드화 한 것이 MARC 형식이며, KORMARC 형식은 한국목록규칙을 실질적으로 코드화했다고 볼 수 있다. KORMARC 형식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5년 자료유형별로 각각 발행되었던 것을 통합서지용으로 발행한 이후, 2013년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RDA를 반영하여 개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²³⁾ 이 개정안의 내용은 데이터 상호 교환성을 위해 국제표준인 MARC 21과 국내표준인 KORMARC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할 수 있도록 MARC 21 Update no.13(Sep. 2011)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 도서관에서 RDA 규칙을 도입한 한 후 이를 적용한 해외 MARC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향후 새로운 규칙 적용에 대비하여 KORMARC에서도 RDA 관련 MARC 필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Ⅲ.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 모색

1. KCR4의 특성 및 문제점

가. KCR4의 특성

KCR4는 기본적으로 KCR3의 기술체계를 수용하면서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기술사항을 추가하였으며, KORMARC의 사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술규정을 일부 수정하였다. KCR4가 지닌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²⁴⁾

첫째,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한 규칙이다.

둘째, 종래 단행본 중심의 목록규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로 발표되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전판에 비해 기술의 대상을 크게 확장하였다.

셋째, 화상자료와 영상자료를 통합하여 규칙을 제정하였다.

22)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韓國目錄規則 : 전자책, 전자저널 기술규칙, 제4판 보유권(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13), p.vi.

2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 통합서지용 KS 개정 공청회 자료, 2013. 7. 19.

24)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前掲書(2003), pp.vii-xi.

넷째, 표목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서지데이터의 수록방식과 저록의 배열방식이 전통적인 인쇄(카드)목록의 구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예컨대 인쇄(카드)목록에서 표목의 종류와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표목올림지시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다른 기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저록의 배열도 표목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더욱이 저록의 검색과정에서는 접근점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표목이란 개념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저자 등)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종래의 규칙에서는 대표저자가 기재되지 않는 한 4인 이상의 저작물에서는 첫 번째 저자만을 책임표시에 기재하고 나머지 저자는 기술에서 생략하도록 규정하였다. AACR2R(1.1F5)에서도 첫 번째 책임표시만 기재하지만, RDA(2.4.1.5)에 이르러서야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록하며, 선택사항으로 첫 번째를 제외하고 모두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조항은 다른 목록규칙에 비해 매우 앞선 결정이었다.

여섯째,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기본표목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을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이 개념을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절대기준을 규정하기 어렵고, 또 기계가독목록에서는 특정 서지자료에 대해 대부분 단일 저록만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표목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며, 목록의 기능수행에서 다른 접근점과의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기본표목도 저록을 검색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접근점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KCR4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일곱째,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간의 연결기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표목의 검색기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특정 표목에 대한 대표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전통적인 표목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록이론의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한다.

여덟째, 기존 규칙의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규칙의 전개방식이나 체제, 표현 등에서 우리의 사고와 언어 습관에 맞는 형식을 다수 도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목록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에 대한 해설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나. KCR4의 구조적인 문제점

(1) 기본표목과 전거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는 특정 형식의 기본표목을 선정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선정된

표목을 참조로 연결하는 구조였지만 오늘날 온라인 목록이 활용되면서 기본표목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AACR2R의 서두에 기술되어 있는 “기술대상 자료에 대해 하나의 기본기입을 작성하고, 여기에 부출기입(added entry)을 한다”고 하는 종래의 목록법 전제가 되고 있는 방식을 RDA에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RDA에는 ‘통일표제’라는 용어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저작의 채택표제(preferred title for the work)’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²⁵⁾ 저작자명과 함께 저작의 채택표제를 링크하는 경우, 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이 된다. 즉, RDA에서는 종래의 통일표목에 해당하는 ‘전거형 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과 참조에 해당하는 ‘이형 접근점(variant access point)’에 의해 기본기입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KCR4에서는 온라인 환경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파리원칙이후 AACR2의 저자기본원칙에 근거한 기본기입방식에 익숙하던 도서관현장에서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KCR4에서는 전거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개발되지 않아 전거제어는 개별 도서관의 관행대로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동화목록법이전의 전통적인 수작업 시스템에서 개별도서관이 나름대로 기본표목을 적용하며 전거파일을 작성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컴퓨터 환경에서 대부분의 도서관이 전거레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은 KCR4가 제정된 이후 후속으로 전거 규정이 개발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수작업 시스템에서 작성했던 전거파일을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번역서에 있어 외국인명의 다양한 번자표기를 생각하면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한편 국제목록원칙규범이나 RDA에서도 개인명, 가족명, 단체명, 통일표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는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접근점을 크게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으로 구분하면서 전거형 접근점을 포함하여 접근점의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²⁶⁾ RDA에서는 저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가족, 단체를 채택 접근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3인 이상 저작의 저작에 대해 대표되는 저작을 전거형 접근점으로 유지하고 있다.²⁷⁾

전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거를 위한 접근점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방식처럼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식을 대표로 내세워 다양한 이형을 집중하든, 대표형식 대신에 가상의 표준전거번호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형을 집중하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5) RDA 5.1.3.

26) IFLA, *op. cit.* pp.4-7.

27) RDA 6.27.1.3.

(2) 통일표목

KCR4에서는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즉,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목록의 유용성보다는 편목자의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였다. 음악 녹음자료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자료에 있어서는 목록 이용자의 검색성을 고려한 접근점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라도 통일표제의 개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음악 녹음자료는 동일 작곡자의 동일 작품이 발행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어 배열 시 여러 곳으로 흩어질 뿐 아니라, 서로가 동일 작품이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어려워 표제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음악 녹음자료는 전문자료라기보다는 대중자료이기 때문에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라이선스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문(歐文)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는 국문(國文)의 접근점을 부여하여 목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⁸⁾ 이와 같이 음악 녹음자료와 같은 특정 자료의 유형에 있어서는 목록 이용자의 검색을 고려하여 접근점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통일표제의 개념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표제 외에 개인명이나 단체명, 주제명 등에서도 상이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개인명이나 단체명, 주제명을 채택하여 일관되게 표목으로 사용하고, 기타 형식으로 부터는 통일표목 형식으로 참조하여 저작의 집중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KCR4에서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데 반해,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는 통일표목을 위한 필드(1XX, 240, 243, 6XX, 7XX, 8XX 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형식의 통일이 필요하다.

RDA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가족, 단체를 채택 접근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²⁹⁾ 또한 저작의 구분을 위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지침도 언급하고 있으며, 저작에 대한 다양한 표제를 선정 및 기술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³⁰⁾ 이들 내용은 기존의 AACR2R 21-25장과 거의 유사하다.

이 외에도 AACR2에서 RDA로 전면 개정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KCR4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목록 전문가의 KCR4 개정에 대한 의견

가. 분석대상 및 방법

KCR4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내 목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목록관련 강의를 담당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교수 35명과 대학도서관에서

28) 손정표, 전제논문, p.21.

29) RDA 6.27.1.3.

30) RDA 6.28-6.31.

목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70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KSDC(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나. 설문지 구성내용

설문지는 교수와 사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두 집단 모두 공통된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정의 필요성

KCR4 자체의 개정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1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2) 구체적인 개정 방향

KCR4의 개정시에 표목(접근점)에 대한 내용추가 및 전거제어를 위한 세부 규칙의 필요성, RDA의 대폭적인 수용 여부와 '자료유형'별이나 '기술요소'별이나의 여부 등 4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3) 개정에 관한 자유 기술형

KCR4의 개정시 요구사항과 기타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2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사서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이 있었다.

(1) 도서관 현장의 전거업무 현황

전거데이터 작성 여부와 어떤 종류의 전거데이터(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주제명, 기타)를 작성하는지 등 도서관 현장의 전거업무 현황과 관련하여 2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2) RDA에 대한 인식도

AACR2가 RDA(2010년)로 개정된 사항과 RDA를 이해하게 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2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 설문결과 및 분석

문헌정보학도가 개설된 전국의 대학에서 목록관련 강의를 담당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교수 35명과 대학도서관에서 현재 목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7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각각 14명과 30명이 응답하여 평균 42%의 응답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KCR4의 개정의 필요성

〈표 1〉 KCR4의 개정 필요성

	교수	사서
매우 그렇다	4명(28.57 %)	11명(36.67 %)
대체로 그렇다	8명(57.14 %)	14명(46.67 %)
보통이다	2명(14.28 %)	5명(16.67 %)
별로 그렇지 않다	0명(0.00 %)	0명(0.00 %)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00 %)	0명(0.00 %)
계	14명(100.00 %)	30명(100.00 %)

〈표 1〉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은 교수가 12명(85.71%), 사서가 25명(83.33%)으로 거의 대부분이 KCR4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체적인 개정 방향

KCR4에서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개정될 목록규칙에서 표목(접근점)에 대한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표 2〉에서와 같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사람은 교수가 14명(100%), 사서가 29명(96.67%)으로 사서들 대부분이 표목(접근점)에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KCR4에 준하여 목록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으면서도 기본표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목록규칙보다 기존의 업무 방식이 우선되는 도서관 업무 관행을 말해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2〉 표목(접근점)과 전거제어에 대한 내용의 필요성

표목(접근점)			전거제어		
	교수	사서		교수	사서
필요하다	8명(57.14 %)	26명(86.67 %)	필요하다	14명(100.00 %)	27명(90.00 %)
필요하지 않다	6명(42.86 %)	3명(10.00 %)	필요하지 않다	0명(0.00 %)	2명(6.67 %)
잘 모르겠다	0명(0.00 %)	1명(3.33 %)	잘 모르겠다	0명(0.00 %)	1명(3.33 %)
기타 의견	0명(0.00 %)	0명(0.00 %)	기타 의견	0명(0.00 %)	0명(0.00 %)
계	14명(100.00 %)	30명(100.00 %)	계	14명(100.00 %)	30명(100.00 %)

한편 전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보니 일부 기관에서 각기 다르게 전거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향후 개정될 목록규칙에서 전거제어를 위한 세부 규칙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표 2〉에서와 같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사람은 교수가 14명(100%), 사서가 29명(96.67%)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전거제어의 세부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국제적인 목록규칙은 RDA로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KCR4의 개정시에 RDA의 대폭적인 수용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은 교수가 12명(85.71%), 사서가 24명(80.00%)으로 대부분이 RDA의 대폭적인 수용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수가운데 부정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분석하면 동의는 하지만 시간을 갖고 좀 더 연구와 적용과정, 일본이나 중국의 진행과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RDA의 수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RDA의 대폭적인 수용 여부

	교수	사서
매우 그렇다	4명(28.57 %)	5명(16.67 %)
대체로 그렇다	8명(57.14 %)	19명(63.33 %)
보통이다	1명(7.14 %)	5명(16.67 %)
별로 그렇지 않다	1명(7.14 %)	1명(3.33 %)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00 %)	0명(0.00 %)
계	14명(100.00 %)	30명(100.00 %)

KCR4는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술규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나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는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술요소’별로 다루고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향후 KCR4의 개정은 기술요소별 규칙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교수가 12명(85.71%), 사서가 24명(80.00%)으로 거의 대부분이 기술요소별 규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4〉 ‘자료유형별’이나 ‘기술요소별’이냐의 여부

	교수	사서
기준과 같이 자료유형별 규칙 유지	2명(14.29 %)	6명(20.00 %)
기술요소별 규칙으로 전환	12명(85.71 %)	24명(80.00 %)
계	14명(100.00 %)	30명(100.00 %)

(3) 개정에 관한 자유 기술형

KCR4의 개정시 요구사항과 기타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2개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KCR4와 KCR4 보유편(전자책·전자저널 기술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유형’ 외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자료유형
 - 자료유형에 ‘문서’ 또는 ‘기록물’의 추가 요구가 있었으며, 기타 녹음자료, 오디오자료, 화상 자료의 일부 수정 요구가 있었음.
- ② KCR4에 기술된 규정 중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KORMARC 형식과 용어 및 기술규칙의 통일, 무저자명 고전리스트의 국가표준화, 규칙 전반에 걸쳐 보다 다양한 예시 제공 등

(4) 도서관 현장의 전거업무 현황

전거데이터는 〈표 5〉에서와 같이 50%이상이 현재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로 개인명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목록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 전거데이터의 작성현황

전거데이터 작성 여부		전거데이터 작성 유형	
작성하고 있다	8명(26.67 %)	개인명	9명(47.37 %)
현재 작성하고 있지 않지만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	4명(13.33 %)	단체명	5명(26.31 %)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작성 계획도 없다	15명(50.00 %)	회의명	2명(10.53 %)
기타 의견	3명(10.00 %)	주제명	1명(5.26 %)
		기타	2명(10.53 %)
계	30명(100.00 %)	계	19명(100.00 %)

(5) 사서들의 RDA 인식도

AACR2가 RDA(2010년)로 개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표 6〉에 서와 같이 63.33%가 알고 있고, 이들은 주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업무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아직도 RDA에 대해 36.67%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RDA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사서들의 RDA 인식도

AACR2가 RDA 개정된 사실		RDA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알고 있다	19명(63.33 %)	업무 교육	16명(65.67 %)
모른다	11명(36.67 %)	관련 문헌	5명(20.83 %)
기타 의견	0명(0.00 %)	지인	2명(8.33 %)
		기타 경로	1명(4.17 %)
계	30명(100.00 %)	계	24명(100.00 %)

3. KCR4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가. KCR4의 개정 필요성

앞서 KCR4의 문제점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고 전거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목록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도 85%가 KCR4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KCR4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RDA 적용의 필요성

RDA는 서지 데이터의 새로운 개념 모델인 IFLA의 FRBR과 FRAD에 준거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데이터 작성이 가능하다. 이는 IFLA의 국제목록원칙규범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RDA가 JSC라는 특정 국가의 민간단체에서 발행했지만 사실상의 국제표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미 RDA는 2010년 기존의 목록규칙인 AACR2R의 후속으로 간행되어 각국의 국가도서관 등이 적용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2013년 봄부터 적

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RDA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국제표준에 부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RDA는 자료종별로 구분한 종래의 목록규칙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여 전자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FRBR과 FRAD에 근거하여 저작, 개인, 개념 등을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설정하고 관계 데이터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전거정보가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RDA는 특정 형식의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맨틱 웹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외의 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광범위하다.

이와 같이 RDA는 자원 및 전자정보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서지데이터 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전거의 확충, 웹 환경에 적합하여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는 서지 데이터의 개방성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KCR4를 개정할 시에는 RDA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KCR4의 개정 방향

KCR4의 문제점 분석과 목록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종래의 목록규칙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RDA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개념 모형, 구성체계, 새로운 용어 등 기존의 목록규칙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실제 목록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의 목록관행을 염두에 두고 신규 규칙 사이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서관 현장의 목록 담당자에게 부담감을 주게 되고, 사문화된 규칙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개정될 규칙은 국제목록규칙의 흐름을 반영하여 IFLA의 국제목록원칙규범과 FRBR 및 FRAD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RDA의 구조를 따른다.

셋째, KCR4의 후속작업으로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은 전거제어의 세부규칙을 포함한다.

넷째, 목록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에 대한 문제를 접근점의 차원에서 수용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다섯째, 기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세부적인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관련된 새로운 규칙에 포함될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규정 범위

- 목차구성을 RDA와 같이 속성(attributes)과 관계(relationships)로 구분한다.
- 주로 요소(데이터 요소)의 정의에 한정한다.
- 영역(사항)이나 요소의 기재 순서는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쌍이 되어야 할 요소 등 기재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규정할 수 있다.
- 구분 기호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 배열은 기본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부록에서는 구분 기호를 권장·추천하고 예시한다.
 - 특정 MARC 형식에 의한 실제 데이터 매핑 예시, 더블린 코어에 대한 매핑 예시 등을 수록한다.
 - 기타 용어해설 등.
- (2) FRBR에 대한 대응
- 구현형을 서지 레코드의 기반으로 하여 기존 목록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FRBR 제2집단의 개체인 개인, 가족, 단체의 3개 구분을 그대로 채택한다.
 - 자료에 관한 기록의 각 요소는 FRBR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중에 어디에 관련된 요소인가를 명확히 한다.
- (3) 요소의 설정
- 주기사항을 더욱 분석하여 가능한 한 요소화 한다.
 - 핵심 요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 (4) 전거제어
- 집중기능을 위해 전거제어를 중시한다.
 - 저작의 식별을 위한 ‘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즉, 통일표제를 정의한다.
 - 식별요소를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형식을 간략화 할 수도 있다.
 - 전거형 접근점 즉, 통일표목뿐만 아니라 전거 레코드에 기록할 요소에 대한 규정도 검토한다.
- (5) 관계
- RDA에서 구분하고 있는 관계 내용을 검토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국내외 목록규칙의 흐름과 KCR4의 특성, 그리고 목록전문가의 설문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방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파리원칙 이후 최근의 국제적인 목록규칙 흐름은 국제목록원칙규범과 FRBR 및 FRA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RDA로 집약되어 있다.

둘째, 2003년 KCR4가 제정된 이래 KCR4는 제정 당시부터 전거제어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미완성의 규칙이었으며,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서관 현장에서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KCR4가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KCR4의 개정에 대한 목록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국제목록원칙규범,

FRBR 및 FRAD, 그리고 RDA와 같은 최근의 국제목록규칙 흐름을 수용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KCR4의 구체적인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목록 전문가 대부분이 접근점에 대한 내용추가, 전거제어를 위한 세부규칙 마련, RDA의 대폭적인 수용과 함께 자료유형별이 아닌 기술요소별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 통합서지용 KS 개정 공청회 자료, 2013. 7. 19.
- 김정현, 문지현, 김효숙. RDA의 이해.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 김정현. "ISBD(CR)의 특성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pp.147-167.
- 김태수. "한국목록규칙의 현재와 미래," 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정책: 개관 6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5, pp.244-249.
- 도태현. "RDA의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pp.27-48.
- 도태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박진희.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pp.111-138.
- 손정표. "음악 녹음자료의 표목지시사항 관련 규칙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 第16輯(2004), pp.29-66.
- 오동근. "한국형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pp.21-47.
- 이미화.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2011), pp.23-42.
- 이미화. "ISBD 및 RDA 내용유형 및 매체유형 기술 테스트를 통한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2013), pp.119-137.
- 이미화. "KCR4 GMD 및 SMD 기술의 새로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pp.237-255.
- 이미화.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pp.251-272.

- 이미화.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3호(2011), pp.103-121.
- 이미화.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2호(2012), pp.261-280.
- 이창수.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6권, 제3호(2005), pp.137-148.
- 조재인. “RDA 구현 시나리오와 서지 제어의 장래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09), pp.85-105.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 개정의 주요 내용,”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13년도 제1차 회의자료, 2013. 7. 18.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韓國目錄規則 : 전자책, 전자저널 기술규칙, 제4판 보유편.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13.
- 日本図書館協會 目錄委員會. 『日本目錄規則』の改訂に向けて, 2010,
 〈<http://www.jla.or.jp/portals/0/html/mokuroku/20100917.pdf>〉 [引用 2013. 9. 25].
- 日本図書館協會 目錄委員會. 『日本目錄規則』改訂の方針と進捗状況, 2013,
 〈<http://www.jla.or.jp/Portals/0/html/mokuroku/20130221ncr.pdf>〉 [引用 2013. 9. 25].
- Danskin, Alan. *RDA :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A Prospectus, 5JSC/RDA/ Prospectus/Rev/7(1 July 2009)*, 〈<http://www.rda-jsc.org/docs/5rda-prospectusrev7.pdf>〉 [cited 2013. 11. 5].
- IFLA. Cataloguing Section.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9, 〈<http://www.ifla.org.sg/VII/s13/icc/index.htm>〉 [cited 2013. 11. 5].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unich : Saur, 1998.
- ISBD Review Group. *ISBD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Consolidated edition. Berlin : De Gruyter Saur, 2011.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RDA :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0.
- Library of Congress. *RDA in MARC*, October 2012, 〈<http://www.loc.gov/marc/RDAinMARC-10-12.html>〉 [cited 2013. 11. 5].
- Pettee., Julia.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ul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The Library Quarterly*, Vol.6,

No.3(July 1936), pp.270-290.

Taylor, Arlene G. ed.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7.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Jane. "A Study for RDA Implementation Scenarios and Future Bibliographic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3, No.3(2009), pp.85-105.

Doh, Tae-Hyeon. *The History of Korean Cataloguing Rules*.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Doh, Tae-Hyeon. "A Study on Instructions for Access Points Representing Works and Expressions in RDA,"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3(2012), pp.27-48.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im, Jeong-Hyen, Ji-Hyun Moon, Hyo-Sook Kim. *Introduction to RDA : from AACR2 to RDA*. Gwangju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

Kim, Jeong-Hyen.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Bibliographic Description with ISBD(CR),"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4, No.3(2003), pp.147-167.

Kim, Tae-Soo. "The Present and Future of KCR," *Symposium on 21st Century Cataloging and National Bibliography Policy*, 2005, pp.244-249.

Lee, Chang Soo, "An Analysis of Usability of the Catalogue in the KCR4,"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6, No.3(2005), pp.137-148.

Lee, Kyung-Ho. "A Study on the User Task in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1(2012), pp.99-122.

Lee, Mihwa. "A Study on Application of Resource Types of RDA to KCR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8, No.3(2011), pp.103-121.

Lee, Mihwa. "A Study on Considerations in KCR4 through Changes of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Vol.28, No.1(2011), pp.23-42.
- Lee, Mihwa. "A Study on Suggestion for KCR and KORMARC by Analyzing Work and Expression Element of RDA in MARC,"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2(2010), pp.251-272.
- Lee, Mihwa. "A Study on Consideration in KCR4 through Testing the Description of Content Types and Media Types of ISBD and RDA,"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7, No.3(2013), pp.119-137.
- Lee, Mihwa. "A Study on New Method for Description of GMD and SMD of KCR4,"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2(2011), pp.237-255.
- Lee, Mihwa.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KCR4 under the New ICP 20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6, No.2(2012), pp.261-280.
- Oh, Dong-Ge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Korean Authority Database System,"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4, No.3(2003), pp.21-47.
- Park, Jin-Hee. "Comparative Analysis on Descriptive Rules of RDA and KCR4,"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2(2009), pp.111-138.
- Sohn, Jung-Pyo. "A Study on the Cataloging Rules Related to the Heading Tracing Area of Sound Recordings for Music,"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2004), pp.29-66.